

전과범 경비원, 학교는 몰랐다

광양서 전 초등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상습 성폭행

검증 허술... 광주·전남 대부분 용역업체에 맡기고 '뒷집'

학생보호를 위해 채용하는 학교 경비원의 범죄경력 등 신분 검증시스템이 허술해 피해 학생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경찰청은 8일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전 경비원 추모(7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 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광양 모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1학년 A(15)양을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추씨는 전과 10범이 넘는데도 버젓이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취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허술한 신분 검증시스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야간 경비인력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채용 때 성범죄경력 조사를 반드시 거친다. 하지만 절도 등 다른 범죄경력 조치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경비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장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도 문제다. 학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경비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용역회사는 경비원을 학교에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직접 개인과 계약할 경우 1년 이상 지나면 임금 인상 등 재정 부담이 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총 837개 학교 가운데 380개교가 용역회사로부터 경비인력을 파견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306개 학교 중 2~3곳을 제외한 300여 곳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학교보안관으로 불리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검증시스템도 허술한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배움터지킴이 범죄경력 조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광주는 304개 학교에서 345명의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는 88%(304명)에 달했지만, 다른 범죄경력 조회는 7%(24명)에 불과했다. 전남지역도 299개 학교 299명의 배움터지킴이 가운데 범죄경력조회는 56%(167명)에 그쳤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공고때 모든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도록 명시해 대조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선대 운영권 되찾으려 靑에 수천만원 금품 로비

전 이사장 아들, 지역정계에도 불붙자금

박철용 전 조선대 이사장 차남이 잃어버린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 아들(65)이 학교 운영권 장악을 위해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3000만원, 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면 학내 정세직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8억5000만원을 받아챘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추가 수사를 통해 박씨가 세관에 압류된 원유를 통관시켜주겠다고 30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자금 2억3000만원 상당을 관공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또 감사원에 조선대 표적 감사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지난 2011년 8월 3000만원

을 받은 B종교문화재단 대표 김모(5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청와대에서 조선대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44)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잡았다.

행정관 이씨는 압류된 원유의 통관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청탁성 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를 그만뒀다.

박씨로부터 자금을 받은 김씨는 감사원 인사를 만나 조선대 문제를 부각시키기는 했지만 표적 감사를 청탁하지는 않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조선대 집행부 자료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씨는 이외에도 현 재단 집행부를 비방하려고 지역 종교인과 언론인, 전직 대통령 수행비서 등을 상대로 총 8600만원을 뿌렸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조선대는 1987년 학내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박 전 이사장이 퇴출당해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 1월부터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니원침 (8728) 김장두

바군혜 주임 100일이 중요하다

다녀오니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진 안바란다

행복만 안배도 좋겠거만

가수 비 7일간 근신 처분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배구공 맞았다" 허위입원 6천만원

○배구공에 맞아 다쳤다는 거짓 말로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타내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4대 여성이 경찰서행.

○보성경찰에 따르면 양모(여·45)씨는 지난 2008년 7월 25일 오후 3시에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배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14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74일간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는 것.

○경찰에서 양씨는 "아버지가 암으로 숨겨 보험을 많이 들었음 뿐이며 보험금을 타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

/보성=김용백기자 kyb@

여수 금고털이 돈 찾았다

주범 박씨 선친 묘소 옆에 3500만원 묻어
김 전경사 아파트 주변 1500만원 숨겨

금고털이범과 경찰이 공모해 여수의 한 우체국에서 훔친 돈의 행방이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 직후 밤새 수색 작업을 벌였던 야산이 아닌, 자신의 선친 묘소와 거주하던 아파트 주변에서다.

광주지검 수전지청은 8일 "금고털이범 김모(44) 전 경사와 박모(44)씨가 숨겨뒀던 현금 5000만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수 금고털이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지난 4일 김 전 경사의 아파트 인근 공원 다리 밑 돌 틈과, 여수시 돌산을 박씨의 선친 묘소에서 1500만원과 35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발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범행 당일 돈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2005

년 여수 선원동 마트 금고털이, 2008년 여수 학동 금은방 털이 등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7년 폐기물 업체 공단환경산업 협력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이들 두 공범이 여수시내에서 은행강도 사건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당시 재판기록을 모두 검토했으나 1심 당시에는 관련 자료나 기록이 없었고 업체 대표의 항소 이유서에서 박씨의 추가 범행을 언급하고 있다"며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구두 언급에 대해서도 확인



금고털이범 박씨가 훔친 현금을 숨겨놓았던 선친 묘소주변(위)과 김 전 경사가 돈을 감췄던 아파트 인근 공원 다리 밑.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데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순천 조립식 주택 불 노부부 사망

8일 오후 4시50분께 순천시 서면 조립식 주택(면적 16㎡)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집에서는 김모(75), 이모

(여·70)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10여년 동안 마을과 500m 떨어진 이 건물에서 거주하며 바로 옆 감나무 농장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순천 시내의 아들의 집과

이 건물을 오가며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난 5일 사망한 '범서방파' 두목 김태춘씨가 고향인 담양 감향공원에 묻혔다. 김씨 시신은 8일 오후 1시께 유가족과 지인 등 300여명 이상의 추모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 영랑공원 화장장에서 화장됐다. 유가족 등은 화장에 앞서 건물 옆에 '고 김태춘 집사 천국환송에배'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걸고 위패와 영정사진을 둘러싸고 환송에배를 올렸다.

이후 고인의 유해는 장지인 담양 감향공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앞서, 운구행렬은 화장장을 찾기 전 광주 서구 중흥동에 있는 고인이 태어난 집 근처에 들러 간단한 노제를 지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광주지방경찰청과 북부경찰서 경찰인력 5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특별한 불상사는 없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8일 김태춘씨의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추모객들이 묘역에 들어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형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1204-종-4738호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